

南美 노래운동의 기수 '빅토르 하라'

미망인이 쓴 전기 「끝나지 않은 노래」 출간

나의 노래는 덧없는 칭찬을 구하거나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한 게 아니다.
나의 노래는 이 좁다란 나라를 위한 것
땅속 깊이까지 이 나라를 위한 것.
만물이 여기 잠들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곳에
그동안 용감했던 그 노래는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리라.

—「성명서」에서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노래, 그리하여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노래를 부르다 간, 우리시대의 음유시인이 있다. 칠레의 민요가수이자 문화운동가인 빅토르 하라(Victor Jara, 1935-73)가 바로 그 사람이다. 기타 하나를 손에 들고 극우 파시스트들에 대해 싸운 그는 길지 않은 생애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들을 열어줄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시를 쓰며, 라틴아메리카의 '살아있는 神話'로 추앙받다가 73년 군사 쿠데타의 와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과 예술을 완성시킨 이 예술가의 전기가 최근 우리말로 옮겨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아내이며 동료였던 조안 하라가 쓴 「끝나지 않은 노래」(차미레 옮김/한길사)가 바로 그것이다.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숨쉬고 사랑하며 투쟁하던 그의 노래는 이제 남미대륙을 벗어나 전세계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빅토르와 조안, 두 영혼의 만남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이 감동적인 책은 영국인이었던 조안의 유년시절에 대한 회상으로 그 막이 열린다. 가난한 노동자계급 출신이었던 그녀는 이차대전의 포성이 한창이던 시절 우연히 「녹색 테이블」이란 현대무용을 보고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는다. 결국 그때의 충격이 그녀를 무용가로 입단하게 만들었고, 그 뒤 칠레에서 건너온 무용수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대서양을 건너 낯선 땅에 정착하게 된다.

출산, 실연을 거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 앞에 어느날 칠레 국립대 연극학과의 제자였던 빅토르 하라가 나타난다. 농촌 출신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어렵게 대학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항상 환한 웃음을 잃지 않는 이 청년과의 사랑은 조안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이 두사람을 중심으

칠레 노래운동의 기수이자

순교자인 빅토르 하라.

훌륭한 기타연주자, 시인, 작곡가,

연극연출가로, 민중과 함께

숨쉬고 노래했던

아름다운 한 영혼의 일대기.

비록 그는 군사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노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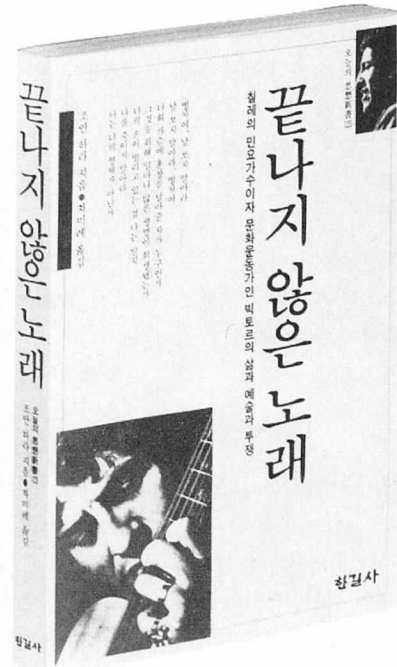
불러지고 연구되고 있다.

로 칠레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무용·음악·연극이 싹트게 된다.

당시 칠레는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극소수의 재벌과 군인, 관료들이 나라의 정치·경제를 제멋대로 요리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만성적인 가난과 무지, 비참의 굴레에 묶여 있었다. TV와 라디오는 양키의 매끈한 상업문화에 점령당한 채 문화적 세뇌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처럼 암담한 지경에 놓여 있던 칠레에서는 60년대 들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생적 민중문화가 태동하기 시작한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화된 이 움직임은 특히 대중가요 부문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는다. 팝송과 미국식 보컬그룹을 제치고 남미 특유의 전통과 민속에 뿌리를 내린 음악이 몇몇 선구자들에 의해 작곡되고 불려지고 전파되면서 도도한 흐름을 이룬 것이다.

대학 재학시절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민요 채집에 정성을 쏟은 빅토르는 곧 이 '새로운 노래운동'의 기수로 부상하게 된다. 파업중인 광부들과 처자를 수천명을 학살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담은 노래 「푸에르토몬트」에 관한 질문」을 그가 대중들 앞에서 불렀을 때의 모습을 조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빅토르가 그 노래를 부를 때 바로 무대 뒤에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두 다리를 벌리고 다리에 힘을 준 채, 마치 그 노래에 자기 목숨이 걸리길라도 한 것처럼, 어두워가는 거리 저편으로 아득하게 멀어져가는 수



많은 얼굴들의 바다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얼굴의 바다는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끝날 무렵엔 격분한 숨 가쁜 함성으로 응답해 왔다.”

‘진실이란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

노래는 그 자체에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이 책은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준다. 아름다움과 진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암수한몸처럼 공존하는 것이며, 참다운 대중적 정서에 기초해야만 그 노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노래가 가진 자들의 유희나 도락을 넘어서 못가진 자들의 무기가 됨으로써 칠레의 대중문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된다. “예술가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자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으로써 그 본질 자체로부터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소통능력 때문에 게릴라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존재가 바로 예술가인 것이다”라고 빅토르는 제3세계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이 문화운동 세력은 70년 좌파 단일후보인 살바도르 아옌데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극우파의 난동과 각종 모략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아울러 이 선거는 제3세계에서 좌익 정당이 투표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는 자랑스러

운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아옌데의 ‘인민연합’정부는 국내외의 술한 난관을 극복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부유층과 군부의 음모를 막아내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이 당시 빅토르의 노래는 민중의 단결을 호소하고 다가오는 극우 파시스트의 준동을 경고하는 ‘문화적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더불어 칠레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예술가로 전세계에 알려진다.

칠레는 곧 우리 자신의 거울

그러나 73년 9월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피노체트를 비롯한 정치군인들의 쿠데타가 발생, 아옌데는 대통령령에서 폭사하고 우리의 80년 봄을 연상시키는 대량살육이 벌어진다. 이때 빅토르는 기타를 만지던 손가락과 손목이 짓뭇개진 모진 고문 끝에 처참하게 사살당한다. ‘희망과 사랑의 노래’에 기관총 세례를 퍼부으며 등장한 군사정권은 그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피의 통치를 감행한다. 그렇다면 칠레의 민주화운동은 영원히 패배한 것일까. 빅토르 하라의 노래 역시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생명이 끊기고 만 것일까.

조안 하라는 이 전기를 쿠데타의 충격으로 별세한 네루다의 장례식 광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집결한 가운데 치러지는 장엄한 운구행렬은 결코 끝나지 않은, 끝날 수 없는 민주대장정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준다. “빅토르는 비록 죽었지만,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장례행렬의 군중 속에서였다”고 조안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조안의 이러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금년 10월 칠레에서 있었던 국민투표는 말해주고 있다. 피노체트는 금권과 관권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투표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과 소련, 동구권, 중남미에서는 가히 ‘신화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빅토르의 삶과 예술과 투쟁은 너무나 유사한 칠레와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굴곡과 더불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 빅토르 하라는 ‘지금·이곳에서’ 우리를 향해 노래부르고 있는 것이다.

—남진우 기자